

하늘을 날으는 크로노포스트

—프랑스—

「파자마는 언제나 일번이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파자마라는 것은 프랑스의 크로노포스트(사업우편)용 우편자루로서 그 우편자루가 청색과 백색의 줄무늬이기 때문에 우체국직원들간에 친밀감으로 이와 같이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크로노포스트는 소정의 시간까지 발송한 우편물을 당일(J 서비스) 또는 익일(J+1서비스)배달하는 것으로 국내1만7천의 우체국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취급량은 연간 200%를 넘는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날로 약진을 계속하고 있는 크로노포스트(J+1서비스)의 루트 중에서 이번에는 파리와 프랑스中西部 도시 사이에 운송되는 약 2톤의 크로노포스트를 추적해 봤다.

22시 10분, 오우리공항에 파리시내에서 정수된 크로노포스트를 넣은 파자마가 도착하여 바로 트란사르 1055편에 적재된다. 「언제나 제일 먼저 적재하는 것은 크로노포스트의 우편자루입니다」. 우편자루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트란사르의 화물실에 이동시키도록 손짓하면서 담당자가 설

명을 해준다. 앞에서 말한 「파자마는 언제나 일번이다」라는 뜻을 알 수 있다. 이 비행기에 600 Kg의 컨테이너 26개를 불과 15분에 적재한다. 오늘밤 프랑스 중서부의 도시 보르도, 포와체를 향하여 운반되는 크로노포스트는 약 2톤이다. 트란사르 1055편이 야간비행을 마치고 파리에 돌아오는 것이 심야 2시 45분경이다.

22시 25분 오똑이형의 비행기는 14톤의 우편물을 싣고 활주로에 든지 3분 후에 이륙했다. 적하물의 20%는 크로노포스트다.

400 Km가 넘는 도시와의 사이에 간선도로에서 벗어난 지방으로의 운송에는 항공기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중서부의 도루드뉴県の 몬티냐에 다음날 아침에 배달되기 위해서는 1055편에 탑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날의 비행은 날씨도 좋았고 북서풍을 타고 보르도에는 예정보다 5분 일찍 도착했다. 곧 바로 몬티냐 앞으로 가는 크로노포스트는 노란색 우편차에 적재되어 2시 35분경 페리그루분센터에 도착했다. 여기서 차를 바꾸어 타고 크로노포스트를 배달하는 메리냐 우체국까지 운반된다.

크로노포스트의 취급물수는 하루 평균

약 4만건이다. 크로노포스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SFMI (프랑스국제수송회사) 홍보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단히 잘 되고 있다. 르·몽드의 독자가 크로노포스트의 0.5%는 익일에 배달이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말하고 있으나 아마도 크로노포스트의 예외적인 지역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 사람은 매일 대량의 크로노포스트가 약속대로 배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 0시 43분, 트란사르 1055편은 보르드공항을 이륙하여 포와티에로 향했다. 「항상 돌아갈 때는 적하물은 적다. 가는 길 2통에 비해 보르드, 포와티에에서 적재되는 크로노포스트는 700 Kg 정도일 것이다. 평소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수송량은 북부에서 남부로 보내지는 것보다 물량이 적다」고 기장은 말한다. 2시 45분 트란사르 1055편은 무사히오투리공항에 돌아왔다.

(우정, 1990.8)